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4건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4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는 (주)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 및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및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사 및 편블 외 3개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구 분	업체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지정 (4건)	한국평가정보(1건)	조달 입찰(나라장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카카오뱅크-전북은행(1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디렉셔널(1건)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하나증권(1건)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건)	나이스평가정보 외 3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1건)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LS증권(1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규제개선 수용 (3건)	나이스평가정보 외 29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1건)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루센트블록 외 6개사 (1건)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플랫폼 서비스
	편블 외 3개사 (1건)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플랫폼 서비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530)
		담당자	서기관	마 순 (02-2100-2841)
			사무관	김혜수 (02-2100-2872)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신용진 (02-2100-2623)
			사무관	김예빈 (02-2100-2622)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이진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02-2100-2952)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남명호 (02-2100-2653)
<공동>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김경문 (02-2100-2663)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위충기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이수인 (02-3145-7125)
			팀 장	이우람 (02-3145-7135)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최동우 (02-3145-8022)
<공동>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김용진 (02-3145-7590)
			팀 장	김세훈 (02-3145-7587)
<공동>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국 장	박시문 (02-3145-6700)
		담당자	팀 장	이혜진 (02-3145-6540)
<공동>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책임자	국 장	조치형 (02-3145-8100)
		담당자	팀 장	김대일 (02-3145-8482)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책임자	국 장	김욱배 (02-3145-5700)
		담당자	팀 장	김현정 (02-3145-5685)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4건) >**①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한국평가정보)

[서비스 주요내용]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비대면 채널)입니다.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분의 10% 이상을 가진 법인은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현 주주구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및 평가를 통해 비대면 신용 등급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평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신용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서비스 대상은 조달 입찰 수요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신용평가 보고서의 제출처 또한 조달 입찰(나라장터)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출처가 해당 신용평가보고서가 일반적인 기업신용등급이 아닌 소상공인에 특화된 평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매출액 등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여 등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서비스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②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앱(App)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실시한 이후,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하여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①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②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③신용정보법 제4조, 제27조의2

①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계약 체결·대출실행 업무*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②카카오뱅크가 전북은행 대출분에 대한 대출관리 업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서로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전북은행의 경우 대출업무 중 계약 체결과 대출금 지급을 카카오뱅크가 수행하는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다른 은행에 위탁하는 것에 해당할 소지

④또한, 카카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전북은행 대출분에 대한 연체사실 안내 및 연체금을 수령하는 한편, 전북은행은 카카오뱅크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양 은행은 공동대출 서비스를 통해 대출 취급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 등을 제공 가능하고, 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함으로써 대출 취급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범위를 확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동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실행 화면 등을 구성하고 상품 약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두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평가에 대한 영향을 대출실행 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두 은행 간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의 직접판매 및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제 등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판매 상품이 추가되거나, 업무 수행구조*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 금융당국의 적정성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재 전북 → 카카오로 위탁 예정인 업무를 카카오 → 전북으로 위탁하는 모형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③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디렉셔널)

[서비스 주요내용]

①앱과 웹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대차 계약 집행, ②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화 기능 제공을 통해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고, ③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하여 무차입 공매도 방지하는 주식 대차 플랫폼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와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하므로, 인가 및 신고 없이 주식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주식대차 거래에 대한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개인(일반) 투자자의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 측면에서 공매도 관련 안내 강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①참여 증권사 대상 제한, ②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 ③전산시스템 안정성·연계성 강화, ④사후점검 절차 마련, ⑤공매도 관련 안내 강화, ⑥리콜 제한 및 안내, ⑦담보관리 세부내용 마련, ⑧소비자 보호·위험관리 방안 확정 등

4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하나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해외증권사가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7항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만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외리테일 고객의 국내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기 계열회사 요건 등을 미충족한 해외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비거주 외국인은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결제를 할 수 있어 이들의 투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 주체가 다양화되며 신규 자금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17년 통합계좌 도입 이후 보고의무 완화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설 사례가 없었으나, 통합계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신청기업은 해외 증권사의 내부통제 감시 의무를 부여받아, 해외 증권사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국내 증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최종투자자 거래내역을 사후보고하는 양식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신청인은 금융당국의 요청 시 거래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해외 증권사와의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건) 〉

①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외 31개사*)

*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교보생명보험, 교보증권, 광주은행, 동양저축은행, 롯데카드,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투자증권, 아이지넷, 아이엠뱅크, 엘지씨엔에스, 엘지유플러스, 엔에이치투자증권, 에스케이텔레콤, 유비벨록스,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카카오페이, 케이비캐피탈, 케이비증권, 케이티, 키움증권, 핑크, 하나카드, 하나은행, 하나증권, 헥토데이터,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기존 지정내용] ('23.4월 최초 지정)

신용정보주체(고객)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시 다수 정보제공·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송요구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왔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5.4.12.~'27.4.11.)

안정적인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서비스 선진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 등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②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LS증권)

[기존 지정내용] ('22.9월 지정, '23.4월 서비스 개시)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계좌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5.4.10.~'27.4.9.)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소수단위 주식거래시 매매체결 방식에 대하여 핵심설명서 등에 투자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고지하고 의결권, 유상증자 등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있음과 그 범위를 비교표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3건) >

①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외 29개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네이버파이낸셜,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BANK샐러드,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미래에셋증권, 신한카드, 신한은행, 우리카드, 우리은행, 웰컴저축은행, 쿼터백그룹, 쿠콘, 케이비핀테크, 핀다, 핀테크, 해빗팩토리, 헥토이노베이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한국신용데이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BC카드, SK플래닛

[서비스 개요] ('21.5월 지정, '23.5월 연장)

신용정보주체(고객)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시 다수 정보제공·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송요구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왔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나이스평가정보 외 29개사는 지속적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에서 연계정보(CI) 생성·처리를 통한 통합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이 既개정되어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근거를 마련('24.7.24. 시행)하였고, 동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하위법령에 승인 절차, 세부심사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

②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디지털화 및 유통플랫폼 서비스

(루센트블록 외 6개사*)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서비스 개요] ('21.4월 지정, '23.4월 연장)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신탁으로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 후, 이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하고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1조, 제37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①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업무 영위, ②수익증권 발생 공모주선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매출 중개 영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루센트블록 외 5개사는 非 금전재산인 부동산 기반 수익증권의 발행·모집업무 등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유통화를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 그간의 운영성과, 규제개선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非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동 법 개정도 지속 추진중

※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안) ('24.11월, 김상훈 의원안 국회 계류 중)

- ① (수익증권 발행)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되,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 ② (수익증권 발행계획 등록) 수익증권을 발행시 수익증권발행계획을 미리 금융위에 등록 원칙
- ③ (판매규율) 수익증권 판매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와 판매(위탁)계약 체결
- ④ (수시공시) 부실자산 발생 등 주요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 부과
- ⑤ (의무보유 등) 투자자(수익자) 보호를 위해 위탁자에 대해 수익증권 보유(5% 등) 의무 부과 등

③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플랫폼 서비스

(편블 외 3개사*)

* 대한토지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리아신탁

[서비스 개요] ('21.5월 지정, '23.5월 연장)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신탁으로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 후, 이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하고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1조, 제37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①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업무 영위, ②수익증권 발생 공모주선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매출 중개 영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편블 외 3개사는 非 금전재산인 부동산 기반 수익증권의 발행·모집 업무 등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 그간의 운영성과, 규제개선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非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동 법 개정도 지속 추진중

※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안) ('24.11월, 김상훈 의원안 국회 계류 중)

- ① (수익증권 발행)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되,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 ② (수익증권 발행계획 등록) 수익증권을 발행시 수익증권발행계획을 미리 금융위에 등록 원칙
- ③ (판매규율) 수익증권 판매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와 판매(위탁)계약 체결
- ④ (수시공시) 부실자산 발생 등 주요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 부과
- ⑤ (의무보유 등) 투자자(수익자) 보호를 위해 위탁자에 대해 수익증권 보유(5% 등) 의무 부과 등